



### 세계 문화유산 대흥사

〈15〉 정보박물관



대흥사 정보박물관에는 금동여래좌상, 탑산사동종을 비롯해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하사한 교지, 초의선사가 집필한 '동다송' 등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해남 대흥사 제공〉

## 서산대사 호국정신·초의선사 다도사상 ... 고승대덕들의 가르침

전통과 현대 조화로운 외관  
서산대사 충혼 서린 유물관  
'무량수각' 등 추사 진본 서체 압도  
초의선사 손길 깃든 저서와 도구  
탑산사 범종·탱화 등 명품 감상

한낮의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하지만 여전히 맹렬하다. 바늘같처럼 따가운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걷는 길은 그 자체로 수행이다. 삶이 곧 수행이다.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더러는 피약별을 걸어야 하고, 장대비 속을 뚫어야 하며, 눈보라치는 들판을 거슬러 가야 할 때도 있다. 소리죽여 눈물을 흘려야 할 시간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행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되는 거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마다 주어진 정진을 피할 수는 없다. 회피는, 더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각자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고집(苦集)에서 벗어나 멸도(滅道)에 이르는 길은 정녕 사바의 사람들에게 난제일까. 생로병사와 번뇌의 사슬은 속다짐만으로는 어려운 일인가 보다.

오늘의 목적지는 해남 대흥사(주지 법상)의 성보 박물관(聖寶博物館)이다. 금동여래좌상, 탑산사동종, 묘법연화경목판, 영산회상괘불도, 사가목정선, 화상당명병서, 교지와 같은 유물을 알현하는 것이다. 오늘의 대흥사는, 서산대사와 초의선사 그리고 성보박물관이 핵심 토대가 됐다. 유서 깊은, 더러는 장엄하고, 더러는 찬란한 문화재에 고승대덕의 불심과 법어가 함께하니 비할 데 없이 도탑다.

대흥사 천년 숲에 들어서자, 시원한 그늘이 발걸음을 붙잡는다. 여기가 극락이다. 불별이 사그라들고 구곡 옥류가 귀를 씻어준다. 숲의 어디선가 빠꾸기가 아는 체를 한다. 삐죽, 삐죽, 반갑다는 인사려니 싶다. 하오의 햇살을 비껴 떨어지는 소리의 울림이 애잔하다. 구슬이 굴러가듯 시냇물에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 소리에는 공명이 있어 절로 화음을 만들어낸다.

다시 들려오는 빠꾸기의 울음. 조금 전 소리는 수인사였나 싶더니, 이번에는 목청에서 애잔한 기운이 느껴진다. 필경 울음을 토해내는 것이리라. 아니다. 이쪽에서 보면 울음이겠지만, 삐죽새는 수인사도, 울음도 아닌, 노래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세상 삼라만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도 종내는 그렇지 않다. 이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빠꾸기는 우는 것일 터. 저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전혀 다

시종일관 두룬산 삐죽새는  
苦集 滅道만 토하니  
苦集 滅道가 된 말인지  
뜻이나 알고 토하는가

苦集 滅道 苦集 滅道  
苦集 滅道 苦集 滅道

두룬산 삐죽새가 토하는  
苦集 滅道가  
동국선원이 묵언 정진하는데  
도움이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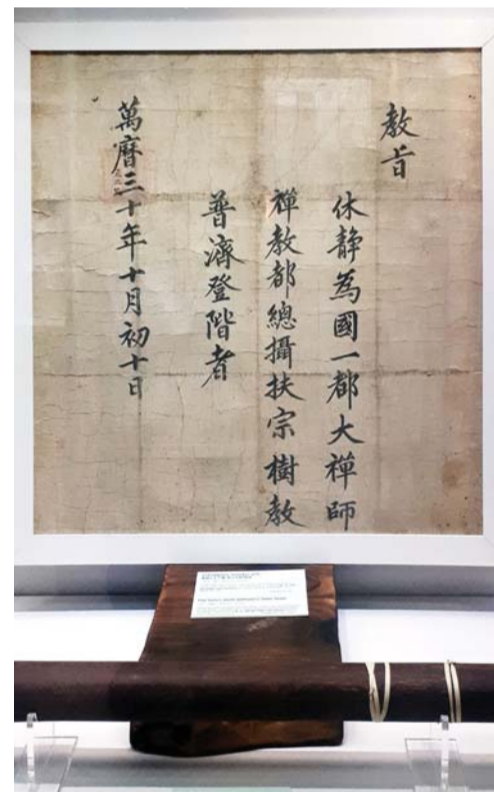
하안거 중인 동국선원은  
묵언 정진이나  
두룬산 삐죽새는  
묵언 정진과 거리가 멀다

(김재석 '두룬산 삐죽새' 중에서)

른 궤도로 움직인다. 생이 고달픈 건 서로 다른 궤도와 서로 다른 지향이 맞물리기 때문이리라.

아무려면 어떤가. 그 또한 수행의 과정이다. 이제 보니 하안거(夏安居) 묵언정진이 안행심을 삼가라는 뜻이겠다! 하안거 해제일이 코앞이다. 침묵을 이어가던 빠꾸기가 다시 부리를 울조린다. 옥계수 흘러가듯 빠꾸기 소리가 정적을 깨운다. 반야교 너머 은혜에 흠여지는 소리일런지.

해탈문을 들어서면 경내가 흰히 열린다. 차향 가



선조가 서산대사에 하사한 교지



법신중위회삼십칠존도

득한 동다실에 잠시 눈길을 두다. 무염지로 방향을 튼다. 운유하고 소쇄한 풍경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풍진(風塵)에 물들지 말라는 연못의 뜻을 아로새기며 곧장 성보박물관으로 향한다. 웅장하면서도 단아한 박물관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다.

안으로 들어선다. 일층에는 다양한 현판이 전시돼 있다. 조선 당대 명필의 글씨가 쟁쟁하다. 추사 김정희의 '無量壽閣(무량수각)' '東國禪院(동국선원)' '一爐香室(일로향실)' 등 현판 글씨는 자부외 오만만을 뛰어넘는 예술혼이 느껴진다. 그의 글씨는 경지를 무너뜨린 자유자재의 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아닌 탑산사 범종이다. 고려시대 범종(높이 79cm, 입지름 43cm)으로 본래 탑산사에 있던 종인데 일제강점기 만일암(晩日庵)으로 옮겨졌다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일명 대흥사 동종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종의 상부 천판위에 부착되어 있는 용뉴(龍紐)는 정교하게 처리되어 매우 사실적이고 박력있는 용두(龍頭)를 갖추었고, 앞으로 힘있게 뻗은 왼편 발에는 여의주를 잡고 있는 등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층에서 이층으로 향하는 복도 벽면에는 '법신중위회삼십칠존도'(法身中圍會三十七尊圖) 탱화가 걸려 있다. 윌우스님은 "법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방 아축불, 남방 보생불, 서방 관자재불, 북방 불공성취불을 모셨으며 또한 32보살이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의선사께서 대광명전을 신축한 후에 지우었던 추사가 하루빨리 해배되기를 기원하는 심정으로 화주를 권선했다"며 "추사의 제자인 위당 신관호가 시주해 조성된 탱화"라고 덧붙였다.

이층에는 서산대사 유물관이 따로 마련돼 있다. 금란가사와 발우, 염주, 법라, 호패 등의 유물은 대사의 충혼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다.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내린 교지와 친서 등도 꼭 기억해야 할 유물이다.

맞은편 초의관에서는 '동다송'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저서와 다구를 만나니, 대흥사의 서향과 격조를 짧은 순간이나마 느낀 것 같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금동여래좌상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